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3월 3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30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3. 30.(수)	담당부서	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
담당과장	조수정 과장(044-203-5740)	담 당 자	문형태 사무관(044-203-5743)

공급망 위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신통상 거버넌스

- 산업부,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2차 FTA 전략포럼 개최 -

- 민간전문가, 통상·산업 연계로 경제안보 시대 적극 대응 필요 강조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3.30(수) 오후 **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**되는 가운데 **우리의 신통상전략과 통상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**하고자 **2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**함

< 2차 FTA 전략포럼 개요 >

- **일시/장소** : '22.3.30(수) 14:00 / 서울
- **참석자** : **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·이시욱 국제통상학회장**(공동 주재), 김태황(명지대, 무역구제학회장), 성한경(시립대), 송백훈(동국대), 송영관(KDI), 이준·조은교(산업연), 장상식(무역협회), 최성호(경기대) 등
- **주제** : **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신통상 거버넌스**

□ 산업부는 **통상환경의 변화에 맞춘 FTA 新전략을 마련**하기 위해 지난 2월 **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FTA 전략포럼을 출범**하였고,

○ 이번 2차 포럼에서는 **미-중 패권경쟁, 팬데믹, 우크라이나 사태** 등 **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진단**하고, 이에 **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통상정책과 통상 거버넌스**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함

* 지난 2.25(금)에서는 「FTA 경제적 효과 분석」을 주제로 1차 포럼을 진행

□ 간담회를 공동 주재한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"**세계적 공급망 위기가 심화**되는 상황에서 **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우리 핵심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는 통상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**하다"고 밝히고,

○ "**공급망, 기술경쟁, 디지털, 탈탄소 등 신통상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**하며 **국가 경쟁력**을 키워갈 수 있는 **거버넌스를 조성**해나가야 한다"고 강조함

□ 이후 주제발표에서는 3명의 통상전문가가 발제를 진행하였고, **공급망 재편** 상황에서 **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통상정책의 필수 요소**가 되고 있으며 **산업전략과 통상전략의 연계가 더욱 중요**해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함

❶ 첫번째 발제자인 **무역협회 장상식 산업분석실장**은 「**공급망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**」을 발표함

- 장상식 실장은 "요소수 사태, 미국의 해외직접결제제품규칙(FDPR) 예외 인정에서 알 수 있듯이 **산업 품목의 전후방 연계와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통상업무에서 점차 중요**"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

- "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**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, 각국의 수출 제한 움직임에 대처**하기 위하여 **경제안보·산업·통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**"가 있다고 강조함

- 아울러 "지난해 10월 무역협회가 실시한 **무역업계 CEO 대상 「신정부에 바라는 무역통상정책」 설문**에서도 **국가적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**과 **통상당국의 전문성 강화** 응답이 많았다"고 언급함

❷ 다음으로 **산업연구원 이준 산업정책연구본부장**이 「**공급망 위기에서 본 향후 통상정책 방향**」을 발표함

- 이준 본부장은 "예기치 못한 **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체계 및 회복력**(resilience) **확보가 국가의 역량으로 직결**"된다고 설명하면서 "**탄소중립 기조 확산**"과 "**미중 패권경쟁**"이 향후 **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교란요인으로 작용**할 것이라고 전망함

- 이러한 상황에서 "**자유무역협정 등** 우리 경제·산업 지형을 확장하는 **전통적 통상전략**과 함께 **우리 산업 공급망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거나 보완하는 통상전략**이 필요"하다고 하면서

- "**산업, 기술, 시장의 지렛대를 확장하는 통상전략, 산업전략과 상호보완적 관계의 통상전략**을 수립·추진"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

❸ 마지막으로는 **경기대 행정대학원 최성호 교수**가 「**공급망 대응과 신통상 거버넌스**」를 주제로 발표함

- 최성호 교수는 "**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산업정책, 가치연계 통상**이 통상정책의 핵심이슈로 부상"하고 있다면서 "**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한 호기로 활용**하고 **공급망 위기시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통상정책 체계 구축**"이 필요하다고 강조함

- **통상정책 차원의 공급망 대응체계**로 "**통상·산업 연계 강화로 전략 산업동맹을 구축**하고 **자원확보, 개발협력과 연계하여 핵심원자재 수입다변화 국가 네트워크**를 형성"할 것을 제안함

- 또한 **신통상 거버넌스의 요건**으로 "**통상교섭과 함께 산업, 자원, 에너지 등 전문성 융합**"을 제시하면서 "**신통상 추세에 역행하는 외교통상형 환원은 퇴행**"이라고 지적함

- 특히 "**조직 불안정과 국가적 비용을 초래하는 잦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지양**"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"국가안전보장회의(NSC)와 병렬적으로 **대통령직속 국가경제위원회(NEC)를 설치·운영**하여 부처간 협업을 보강"할 것을 제안

□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**반복되는 통상조직 개편 논의가 우리의 통상역량 강화를 저해**하고 있다고 우려하고, **통상환경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** 속에서 **우리의 통상조직도 실물경제와 호흡을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크다**는 데 공감함

○ 간담회를 공동 주재한 **이시욱 국제통상학회장**은 "최근 요소수 사태 등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**공급망 교란은 예상치 못한 산업 부문 어디에서나 발생**할 수 있는 만큼, **통상당국과 산업계 간의 원활한 소통 및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**이 긴요하다"고 제언함

□ 산업부는 **메가 FTA와 농축수산업, 인·태 경제 프레임워크의 주요 쟁점** 등을 주제로 **올해 FTA 전략포럼을 3~4차례 추가로 개최**하여, 다양한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하면서, **국제 통상환경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신통상전략을 지속 점검**해나갈 계획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문형태 사무관(☎044-203-57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